



주간
대학교육

596
2010년 6월 14일
The KCUE Weekly

발행인 : 이기수 / 편집인 : 성태제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21-9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1 KGIT상암센터 11층
대학홍보 안내 및 문의 전화 : 02 · 6393 · 5285 팩스 : 02 · 6393 · 5280 이메일 : weeklynews@kcue.or.kr 홈페이지 : www.kcue.or.kr

대교협 주간 주요 활동

● **교육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하 대교협)은 2010. 5. 28(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육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의 준수와 초·중등교육 - 대학교육 연계를 중심으로 교육 전반에 관해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논의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협력위 위원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민경찬 연세대 교수,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 신금봉 부산시민사회교육연합 상임대표, 이기수 고려대 총장(대교협 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한송 강릉원주대 총장, 함성익 이천남초등학교 교장 등 협력위원 13명과 김보엽 교과부 대입선진화과장, 양정호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 **제5차 대학입학사정관 직무연수 실시**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2010년 입학사정관 제5차 직무연수"를 2010년 6월 9일(수)부터 6월 11(금)까지 원주 인터볼고호텔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면접실습 심화과정을 중심으로 전국의 입학사정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로 진행되었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인재상 설정 방법 및 실습, 인지검사 / 비인지검사의 이해와 활용방안, 모의상황 면접과제 개발 실습, 평가지표 제작 실습, 모의상황 면접과제 실습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팀별로 실습하며 각 대학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가톨릭대 박영식 총장은 "이 도서들을 미국학 전공자들 뿐 아니라 다른 교수와 학생들에게도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네한 공보참사관은 이날 기증식이 끝난 뒤 재학생 및 교직원을 상대로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재임 1년' 주제의 콜로키엄에 연사로 참여해 강연했다.

회원대학 소식

●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총장 박영식)는 9일 오전, 미카엘관 귀빈 접견실에서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미국학 관련 도서 300권을 기증받았다.

이날 도서 기증식에 참가한 패트릭 리네한(Patrick Joseph Linehan) 미대사관 공보참사관은 "가톨릭대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이라며, "교수와 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대사관이 기증한 도서 300권은 미국무부 교육문화국의 미국학 관련 추천 도서목록에서 선정된 책들이다.

●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서만철 교수가 총장 임용장을 받고, 6월 12일부터 제6대 총장으로 집무를 시작한다.

서만철 총장(徐萬哲, 자연과학대학 지질환경과학과, 1955년생)은 지난 2월 대학 구성원의 선거에 의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제6대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되었으며, 임용절차를 거친 후 6월 11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 임용장을 전수받았다.

서총장은 평소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을 소유하면서도, 치밀한 전략으로 집중력과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 자체 평가 위원 등 중요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꿈꾸는 공주대학교가 서

총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교명변경 등 지역사회와 갈등에 대해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보의 첫 단계로 서총장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해 이미 공주 시내에 있는 관사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만철 총장은 6월 18일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6월 12일이 토요일 휴무임에도 정상 출근하여 오전에는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는 등 총장으로써의 직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신입 보직자들과 회의실에서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

●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와 광운대학교(총장 김기영)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광운대 화도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정보관리시스템 공동 개발 및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에 명지대학교가 광운대학교와 추진하는 대학통합정보관리시스템(ERP)의 공동 개발과 구축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이 아닌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국내 대학

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명지대 유병진 총장, 광운대 김기영 총장을 비롯하여 양 대학의 실처장급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 대학은 ▶대학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대학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대학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적교류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합의하였다.

유병진 총장은 “이번 광운대와의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학 행정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의 결과 향후 대학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대학경영의 투명성 제고, 정보서비스 제공시간 단축, 대학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내·외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경대학교

부경대(총장 박맹언)와 한국DB진흥원(원장 한응수)은 6월 14일(월) 오후 2시 부산 부경대학교 본관에서 실무중심 DB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기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결되던 DB인력양성 산학협력이 이번에는 부산지역 최초로 부경대학교에서 시행되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엔코아컨설팅(대표 이화식)은 데이터모델링 툴(DA#) 45copy(3억원 상당)를 부경대에 기증하였으며, 엔코아의 DB컨설턴트들이 부경대 학생들과 커뮤니티를 구성한 기술 멘토링 지원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한국DB진흥원이 DB 관련 우수인재 부족 현상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DB전문가, Made 人 캠퍼스!' 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학에 실무중심의 커리큘럼과 교재, 국산 DB솔루션, 맞춤형교육 등을 지원하는 대학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DB진흥원 한응수 원장은 "DB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프라로 거듭나고 있지만, DB산업 현장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이 매우 모자란 실정이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相生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부경대학교 박맹언 총장은 "현장중심의 실습환경 조성으로 취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과 한국DB진흥원이 힘을 모아 전문화된 DB인력을 배출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전주대학교

전주대(총장 이남식)는 6월 7일(월) 2011학년도 학사단위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고, 대학 특성화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으며,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사단위로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대학특성화의 지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학정보공시제에 부응하고 이에 따른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

구조개편은 2,822명 정원 내 개편으로 12개 학부, 30개 학과, 67개 전공 등으로 개편하였다.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대학 문화관광학부 전통음식문화전공을 학과로 분리하고 한식조리학과로 명칭변경, 예체능대학 체육학부 태권도전공을 태권도학과로 분리, 문화산업대학 영상콘텐츠학부 시각디자인전공을 예체능대

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으로 소속변경,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상담학전공을 상담심리학전공으로, 경영대학 경영학부 종합파이낸스전공을 금융경영전공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으며, 음악학과 성악분야는 폐지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소식

● 잘 가르치는 대학 "11개교 선정"

-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
- 선정 대학은 학생 선발부터 교육졸업의 소과정을 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9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지원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ACE :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교과부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 11개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으며, 수도권 대학 중에는 가톨릭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등 4개교가 지방 대학 중에는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세명대, 신라대, 울산대, 한동대, 한림대 등 7개교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1개 대학에는 매년 약 30억원씩 4년간 약 1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0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7개 고등학교

와 245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716,487명으로, 재학생은 629,427명이고 졸업생은 87,060명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6월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본 수능과 같게 출제함으로써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수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11학년도 수능에 반영
-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와 문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1학년도 수능의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

특히,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는 EBS 수능교재 및 방송과 50% 수준으로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1교시 언어영역 및 3교시 외국어(영어)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도구를 기존의 녹음테이프에서 보다 음질이 양호한 CD로 대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홍보하기 위한 채널이 되고자 국내 고등교육 현황 및 회원 대학 소식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교협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를 국문으로 보내주시는 경우 선별·번역 후 홈페이지에 게재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회원 대학 소식(영문) 보기:

<http://english.kcue.or.kr/> ->

News on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Member Universities News

* 구독신청

대교협 홈페이지 내 대학교육소식 메뉴에서 신청 해주시면,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